

주니어RHK 독서 활동지 <커지고 커지고 커지고>

——— **현직 초등 교사 집필 · ‘함께 읽으면 더 좋은 책’ 수록** ———



커지고 커지고 커지고

클라우디오 고베티 글 | 미켈레 리차르디 그림 | 이현경 옮김 | 48쪽 | 13,500원 | ISBN 978-89-255-7915-3 (77880) | 초등 전 학년 대상

교과 연계 (해당 학년·과목·단원에 해당되지 않아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1-1 봄 1. 학교에 가면

3-1 국어 4. 내 마음을 편지에 담아

3-2 도덕 1. 나와 너, 우리 함께

4-2 국어 2. 마음을 전하는 글을 써요

창체 자율 활동 (학교 폭력 예방 교육)



현직 초등 교사가 들려주는 이야기

학교에 있다 보면 아이들의 수많은 고민을 마주합니다. 그중에서도 **빼놓을 수 없는 고민이 바로 친구 관계에 대한 고민**인데요. 친구나 선생님, 부모님에게 그 고민을 내비치는 아이들도 있지만, 누구에게도 이야기하지 못한 채 자기 마음속에만 고민을 껍뚝 담아 두는 아이들도 많습니다. 마치 그림책 《커지고 커지고 커지고》의 주인공 ‘너’처럼요.

‘너’는 친구들 사이에서 혼자입니다. 처음에는 ‘너’도 새 친구들을 사귄 생각에 설레는 마음으로 학교에 입학했지요. 하지만 아이들은 끼리끼리 무리 지어 놀기 시작하고, ‘너’는 그 무리 속에 한 발짝도 끼지 못합니다. 엄마 아빠에게는 학교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아이’로 지내고 있다는 이야기를 차마 하지 못하고요.

아이들에게 무리에 속하지 못한다는 것은 너무나 큰 일입니다. 실제로 아이들은 무리 안에 속하기를, 누군가의 ‘단짝’이 되기를 원합니다. 학교에서 아이들과 상담을 하다 보면 친구들과 두루두루 잘 어울리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아이가 “저는 친구가 하나도 없어요.”라는 고민을 털어놓는 경우를 종종 접하는데요. 친구들이 많아도 자신이 누군가의 가장 친한 친구(들)로 정해지지 않으면 불안감을 느끼는 것이죠.

《커지고 커지고 커지고》에는 놀림받는 친구를 모르는 체하는 아이들의 모습도 현실적으로 담겨 있어요. 안젤리카는 반 친구들을 놀리기 시작합니다. 안경을 쓴다고, 치아 교정기를 낀다고, 키가 크고 말랐다는 이유로 말이지요. ‘너’ 역시도 다른 아이들보다 몸집이 크다는 이유로 놀림을 받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다른 친구들은 ‘너’를 위해 선뜻 나서지 못하죠. 무리에서 배척당할까봐, 자신이 다음 놀림거리가 될까 봐요.

그러는 사이 ‘너’에게는 어마어마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해결되지 않은 문제는 언젠가는 커지고, 커지고, 커져서 펑! 터지기 마련이지요. ‘너’의 고민과 상처는 ‘너’ 자체가 되어 커지고, 커지고, 커지다가 급기야 지붕을 뚫고 솟아오릅니다. ‘너’가 어마어마하게 커진 후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너’에게 커진 것은 ‘너’의 고민과 문제, 몸뿐이었을까요?

저는 이 그림책을 읽자마자 **이 책을 학교 폭력 예방 교육 필독서로 적극 활용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책에는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는 따돌림 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게 하는 힘과 이를 극복하는 ‘너’의 성장이 통쾌하게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생각을 바탕으로 활동지를 구성했습니다.

《커지고 커지고 커지고》를 통해 **친구를 향한 사소한 놀림이 학교 폭력의 시작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또 **피해를 당하고 있는 친구 편에 서는 작은 용기가 학교 폭력의 마침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으면 합니다. 무엇보다 상처받은 모든 아이들이 ‘너’처럼 단단한 ‘나’로 성장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김설아(서울 탑산초등학교 교사)

그림책처럼 이야기가 가득 담긴 삶을 꿈꿉니다. 교실에서 만나는 어린이들과 함께 만들어 가는 이야기를 그림책으로 펼쳐 내고, 그림책을 통해 삶을 가꾸는 학교 안팎의 어른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 좋아서하는그림책연구회 운영진
- 《좋아서 읽습니다, 그림책》 저자
- 서울 · 인천 · 제주 교육청 및 산하 기관 직무연수 다수 출강
- 블로그 ‘그림책과 꿈꾸다’, 유튜브 ‘쌤공작소’ 운영



미션 1 : 책을 살펴봐요

책을 읽기 전, 표지와 제목을 살펴보며 이야기를 상상해 봅시다.



① 책의 제목을 살펴봅시다.

- 제목의 크기와 모양에 대해 말해 봅시다.
- 무엇이 '커지고 커지고 커지'는 걸까요?

② 표지 속 그림을 살펴봅시다.

- 표지 속 아이의 자세가 어떠한가요?
한번 따라 해 볼까요?
- 아이는 왜 이런 자세로 있는 걸까요?
- 아이는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을까요?



제목과 표지 그림으로 미루어 보았을 때, 《커지고 커지고 커지고》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지 내용을 적어 봅시다.

미션 2 : 내 마음이 하는 말



새 학기 첫날, 혹은 아는 친구가 하나도 없는 낯선 곳에 가 본 적이 있나요?
그때의 마음은 어땠나요? 겉으로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도 마음속으로는
수많은 말들을 하고 있었지요? 그때의 경험을 떠올리며 마음속 말들을 적어 보세요.



미션을 완료했다면 이제 책을 펼쳐 봅시다.

미션 3 : 감정을 표현해 봐요

《커지고 커지고 커지고》의 주인공 '너'는 다른 친구들보다 몸집이 좀 더 크다는 이유로 놀림을 받아요.
여러분도 사소한 이유로 친구들에게 놀림받은 적이 있나요?
친구들에게 놀림받았을 때 내 마음은 무엇으로 가득 찼나요?
내가 놀림받았던 말을 아래의 마음속에 적어 보고,
그때 느낀 감정을 색깔과 모양으로 표현해 보세요.

[*놀림받았던 경험을 떠올리기 힘들다면 주인공 '너'의 입장이 되어 생각해 봐도 좋아요.]



미션 4 : 친구의 마음 헤아려 보기



《커지고 커지고 커지고》에서 안젤리카가 반 친구들을 놀린 이유와 놀림받은 친구들의 기분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① 안젤리카는 반 친구들을 왜 놀렸나요?

파올로는 단지 _____ 는 이유로,

조반니는 단지 _____ 는 이유로,

안나는 단지 _____ 는 이유로,

‘나’는 단지 _____ 는 이유로 안젤리카에게 놀림을 당했어요.

② 가족 또는 친구들과 《커지고 커지고 커지고》 역할극을 해 봅시다. 그림책 속 한 장면을 골라 파올로, 조반니, 안나, 안젤리카, ‘너’에게 어울리는 대사를 직접 만들어 보고 여러 인물들을 번갈아 가며 연기해 보세요. 그리고 느낀 점을 함께 나눠 봅시다.

- 안젤리카의 역할을 해 보니 기분이 어땠나요?
- 안젤리카에게 놀림을 당하는 친구 역할일 때는 기분이 어땠나요? 어떤 표정을 짓게 됐나요?

미션 5 : 내가 해 줄 수 있는 일



다른 친구들은 왜 따돌림당하는 '너'를 모른 척했을까요?
만약 이 친구들이 '너'를 모른 척하지 않았다면 이야기는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친구들이 '너'를 위해 할 수 있었던 행동을 적어 보세요.



만약 여러분들이라면 놀림과 따돌림 때문에 힘들어하는 '너'를 위해
무얼 해 줄 수 있을까요?



미션 6 : 안젤리카에게 편지 쓰기



안젤리카에게는 친구가 많았지만, 커지고 커지고 커진 ‘너’의 손에 붙잡힌 뒤로는 친구들이 모두 도망가 버려 결국 혼자 남겨지고 맙니다.
안젤리카가 혼자 남겨진 이유는 무엇일까요?



앞으로 안젤리카가 다른 친구를 놀리거나 따돌리지 않는 친구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마음을 담아 편지를 써 봅시다. 안젤리카에게 좋은 친구가 되는 방법을 알려 주세요. 편지 예절을 지키는 것도 잊지 마세요!

안젤리카에게

너의 친구

미션 7 : 씹씹하게 다짐하기



《커지고 커지고 커지고》속 주인공 ‘너’는 이렇게 다짐하고 있어요.
아무 데도 끼지 못하고 누구에게도 환영받지 못하는 기분을 자신보다 더 잘 아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절대로 남을 따돌리는 아이는 되지 않을 거라고 말이에요.
우리도 ‘너’처럼 다짐해 볼까요? 다짐에 대한 이유를 밑줄에 적어 보고, 친구들과
함께 다짐을 나눠 봐도 좋아요.

따돌림이란 _____ (이)야.

_____ 때문에

나는 절대로 남을 따돌리는 아이가 되지 않을 거야!

미션 8 : 몸만 커진 게 아니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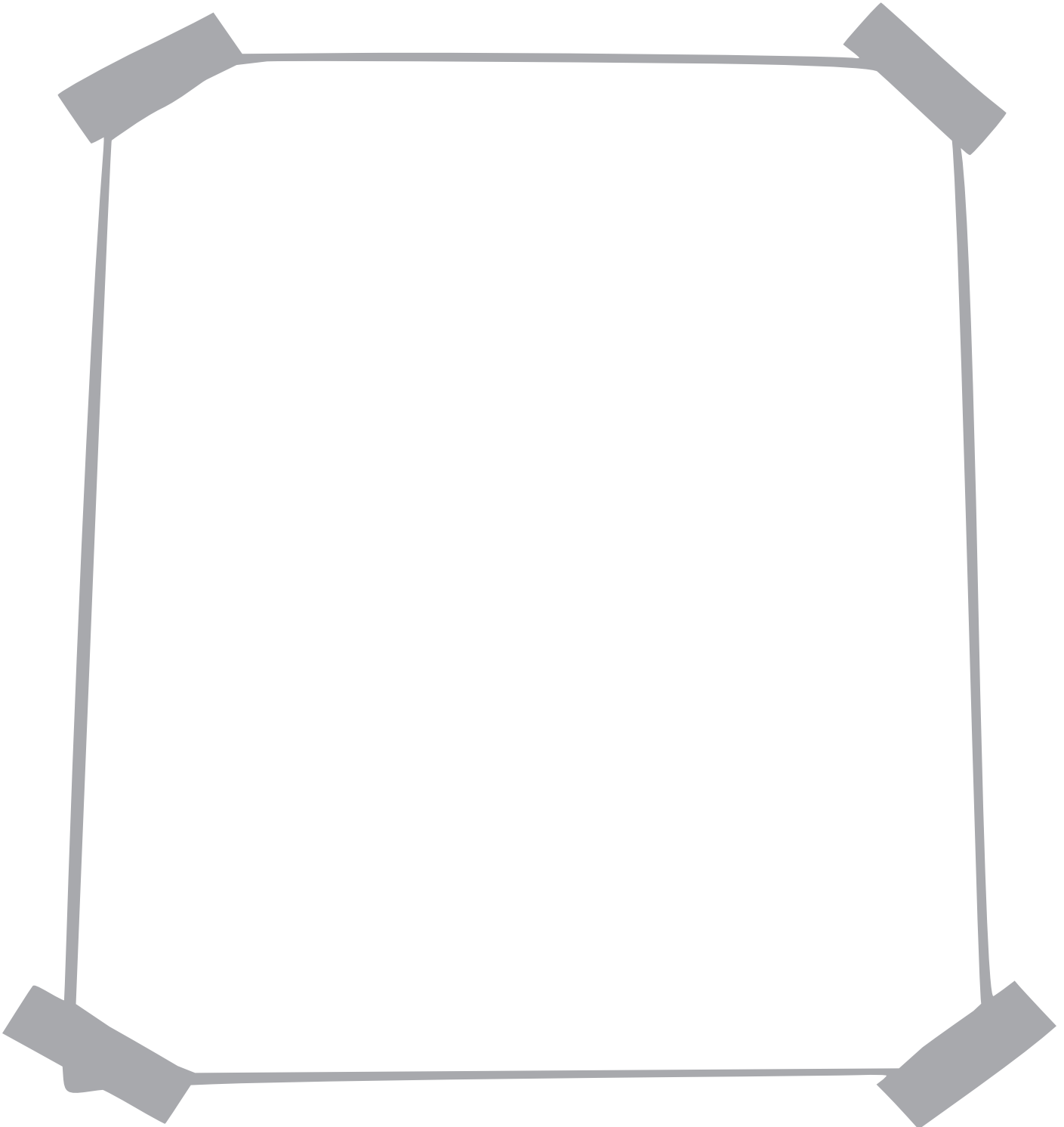
《커지고 커지고 커지고》의 마지막 장면에서 ‘너’와 같이 놀림을 받던 친구들은
커진 몸으로 함께 길을 거닙니다. 이 친구들은 몸만 커진 것이 아니에요.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서서히 자라났는데요, 과연 뭘까요? 마음속에 적어 보세요.



미션 9 : 따돌림 예방 포스터 만들기



《커지고 커지고 커지고》를 읽고 활동지의 미션을 함께하면서 느낀 점들을 생각하며, 따돌림 예방 포스터를 만들어 봅시다.





함께 읽으면 더 좋은 책

《커지고 커지고 커지고》와 함께 읽으면 좋은 책들을 소개합니다.

같은 길을 지닌 다양한 이야기는 아이가 세상을 좀 더 입체적이고 다채롭게 바라보도록 만들어 줄 거예요.

책을 읽고 나서

입학 새 학기를 앞둔 아이에게
작은 용기를 북돋워 주고 싶다면



《부끄러워도 괜찮아》
황선화 글 · 그림

책을 읽고 나서

아이에게 ‘내 것’이 ‘우리의 것’이 되는,
나눔의 즐거움을 알려 주고 싶다면



《내 사과 내놔!》
프랜시스 스티클리 글 | 크리스티나 리튼 그림 | 서남희 옮김

책을 읽고 나서

아이가 ‘있는 그대로의 나’에 대해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길 원한다면



《나도 사자야!》
에드 비어 글 · 그림 | 서남희 옮김

책을 읽고 나서

아이가 편견에 얽매이지 않고
다양한 시선을 갖길 바란다면



《거인 부벨라와 지렁이 친구》
조 프리드먼 글 | 샘 차일즈 그림 | 지혜연 옮김